

집단농장으로 출발, 국내 양계산업 발전에 당당한 한 몫 차지

□ 취재/함경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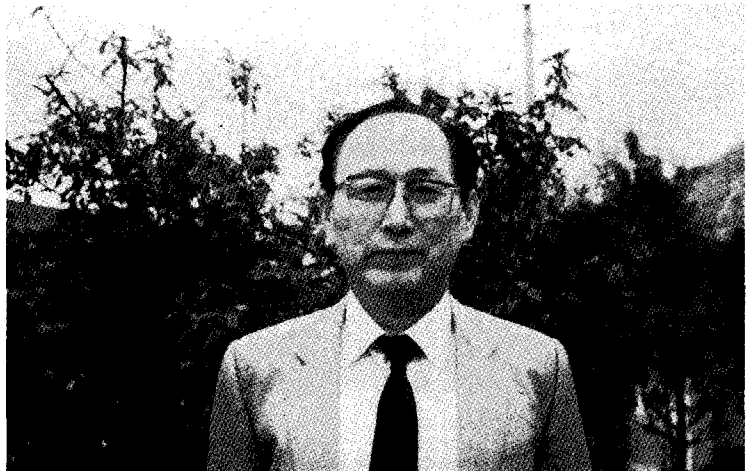
최 근들어 양계산업의 전업화, 대규모화 추세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는 반면 자본여력이 미약하고 규모가 영세한 양계인들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돌파구로 집단농장이나 협업농장 형태를 선호하여 점차 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비해 훨씬 오래전인, 20여년전부터 강원도 원주지역은 양계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양계업에 종사해 왔다.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고 경제권이 수도권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찌면 이런 현상은 당연하게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양계농가의 집합체

원주지역은 170여명의 양계농가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강력한 조직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재철 분회장.

가 220만수 규모를 사육하고 있는데 20여년 전부터 대규모 축산단지가 조직되어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었고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한다.

경천농원과 대명농원에 축산조합이 각각 2개, 그리고 신규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시 근처의 원농조합의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원주산란분회는 운영된다.

88년 원주계우회를 출발하여 운영되어오다 89년에 원주산란분회라는 명칭으로 본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최대한의 이익보장을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이 바로 희망하는 회원들간의 사료 공동구매사업과 계란 공동판매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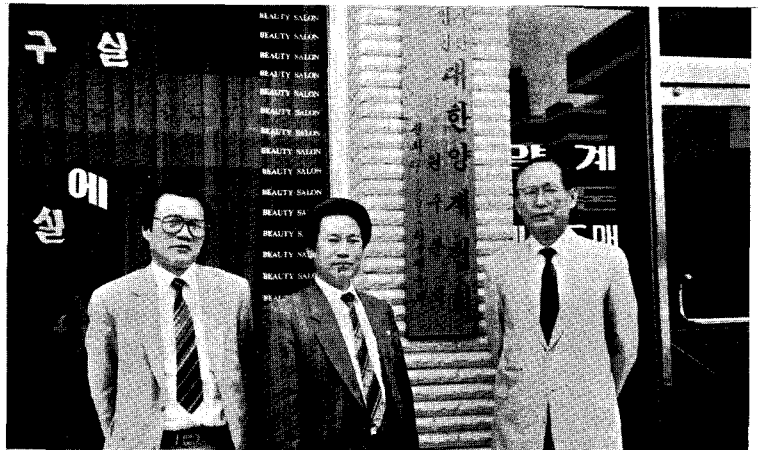
사료공동구매와 계란공동판매 사업 전개

이는 지역적으로 대규모 집단농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경천농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부 회원들끼리 사료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을 꾀해 왔고 계란공동판매를 통한 제값받기에 톡톡히 한 몫을 해 온게 사실이다.

원주지역에서는 계란판매에 있어서도 소규모 상인과는 신용거래를 우선으로 하지만 제법 큰 대규모 상인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의 몇몇 농장에서는 실제로 고시가격에서 2원 이상을 덜 받지만 원주에서는 2원을 다운시켜 받으며 생산량의 과잉으로 물량이 채화될 경우 상인과 생



△대규모 집단농장이 두 곳이나 있는 원주산란분회는 오래 전부터 사료공동구매와 계란공동판매사업을 추진해 왔다. 왼쪽부터 권덕기 총무, 이인수 부분회장, 김재철 분회장.

산자의 합의하에 직접히 조절하고 있다.

육계 군납을 시작으로 출발

원주지역이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양계단지로 발전하기까지의 직접적인 계기는 68년부터 근처 군부대에 300~500수의 육계를 군납한 것이 시작이 되어 점차 계란납품으로 그 형태가 변화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양계장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기에 넉넉했고 자녀교육면에서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수입면에서 제법 우위에 속하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점차 양계산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늘어났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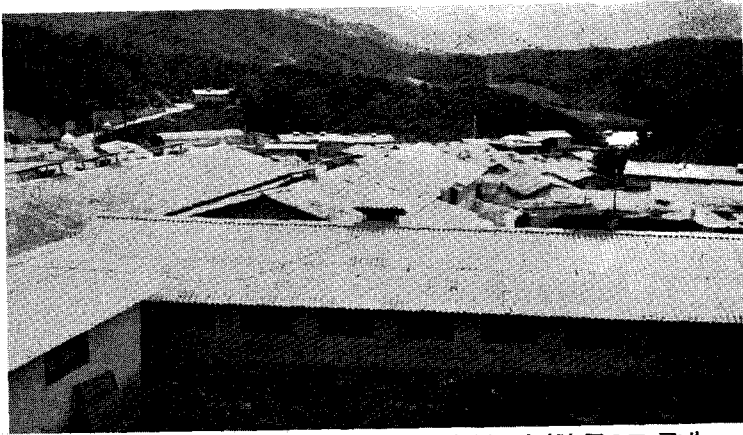
그동안의 경기흐름 진폭이 매우 커 불황을 극복하지 못한 농가가 전업 내지 폐업을 한 경우가 많은데 원주지역은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축산조합을 중심으로 상호협조하여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력이 단단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줄곧 종사해 온 경우가 대부분인 점도 특이할 만하다.

결집된 조직의 보이지 않는 원동력

이런 조직력은 수입개방 반대를 위한 각종 대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찾자'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강한 의지로 표출시키기도 했다.

김재철 분회장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 즉 있는 자와 없는 자간의 괴리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원주산란분회는 회원들끼리 서로 믿고 도와주는 자세로 오랜 기간을 같은 업종에 몸담아 왔기 때문



△원주지역은 20여년 전부터 집단으로 양계업을 경영한 곳으로 국내 양계산업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다.

□ 원주산란분회 회원명단 □

○주소 : 원주시 단구동 1275-145

○전화 : (0371)42-1293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회 장	김재철	원주시 명륜동 세경아파트 5동 404호	43-1421
부회장	이인수	원주시 개운동 산 3	44-4645
〃	조성수	원주시 개운동 산 3	42-9060
총 무	권덕기	원성군 판부면 서곡리 5리 406	43-2526
회 원	강도성	원성군 판부면 서곡리 406	42-0925
〃	김상봉	원성군 판부면 서곡리 406	42-0864
〃	김현수	원주시 단구동 1275-97	44-0863
〃	최인식	원성군 판부면 서곡리 406	43-3020
〃	천종운	원주시 개운동 산 3	43-2033
〃	옥치정	원성군 판부면 서곡리 406	46-9400
〃	김병찬	원성군 판부면 서곡리 406	
〃	최광춘	원주시 무실동 3통 1반	47-4896
〃	홍용석	원성군 호저면 만중 3리	42-9547
〃	이 환	원주시 무실동 2통 1반	43-9815
〃	김봉석	원주시 개운동 384-24	42-4035
〃	정재구	원주시 개운동 산 3	42-9060
〃	박강희	원주시 개운동 산 3	42-9060
〃	박준철	원주시 개운동 산 3	43-2034
〃	김천기	원주시 개운동 산 3	42-8649
〃	김복수	원성군 소초면 장양 1리	46-9398

에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요즘처럼 심각한 인력난 해결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농가의 사유규모가 대부분 1~2만수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계화, 자동화가 바람직한 것임을 알면서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본력이 미약하고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축산물인 완전수입개방이 될 경우 축산경기가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인수 부분회장은 고충을 털어 놓는다.

양계산업의 골치거리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계분처리하는 그동안은 대관령의 고냉지채소, 과수원, 감자재배농가에 보급, 판매해 농가 수익원의 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천농원내에 계분처리공장인 아시아비료공장이 거의 완공되었는데 앞으로 원주지역의 계분은 거의 처리가 가능한 규모라고 한다.

치악산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덕분인지 다른 지역에 비해 뉴캐슬병 발병이 거의 없는 원주지역은 맑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양계**